

경북도, 김천~구미 광역철도 추진 탄력... 예타 부담 줄었다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여건 개선 기존 경부선 활용 서부권 연결 추진 구미~경산 1단계 효과 확산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경산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로, 경부선 기존 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통 이후 1년간 누적 이용객 512만 명을 기록하며 출퇴근 편의 향상과 생활권 확대 등 지역 간 이동 여건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

김천~구미 구간은 이 같은 광역철도 효과를 서부권으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이다.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김천과 구미를 연결함으로써 서부권 생활권 확대와 철도교통 소외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당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인 '권역별 중심지 변경 40km' 제한으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반경 40km 기준을

삭제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김천~구미 구간은 2024년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신규 반영됐다.

또 당초 총사업비 458억 원 규모였던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5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 3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김천~구미 광역철

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광역철도 지정 기준 완화와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구간은 총연장 61.9km 규모로 구미·외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을 개량하고 사곡·서대구·북삼역 등 3개 역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광역철도 개통 이후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통근 여건이 개선됐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 칠곡 낙동강평화축제, 경산 대추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김천~구미 2단계 사업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권 광역철도 3단계 경산~청도 구간과 동대구~영천~포항 광역철도 노선 신규 반영도 건의하고 있다. /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상품화 지원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권이 지역 업체 29곳에 3년간 무료 사용이 허용됐다. 부산시는 부기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의 상반기 신청 결과, 총 29개 업체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광기념품·캐릭터 상품(굿즈), 식품 패키지, 생활·부티용품, 디지털 콘텐츠, 반려동물 상품 등 승인일로부터 3년간 부기 캐릭터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용 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부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가동

영양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영양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두 달간 '2026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기간 동안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와 위험지역 3개소 등 총 12개소에 24명의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현장 배치된다. 주요 배치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는 ▲현동교 ▲토구술 ▲칠성리 와구교 ▲장수포천 ▲송하계곡 ▲본신계곡 ▲수하 번동6교 ▲장파천 ▲삼의계곡 등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중심이다. /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김해 관광개발 국비 60억 확보

문체부 지역관광개발 공모 선정 김해공항·부산항·마산항 연계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김해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김해시와 함께 김해공항과 부산항·마산항 연계 '동남권 글로벌 관광 관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 핵심 관광자원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고 관리·운영 체계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규모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공모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자체 평가를 실시했으며, 김해시 사업을 경남 대표 사업으로 확정해 추천했었다.

선정된 김해 사업은 '동남권 글로벌 여행 관문, 김해: 하늘로 바다로, 김해로

를 가다'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와 다문화적 지역 특성이 공존하는 김해의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김해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항·마산항 입항 크루즈 관광객을 경남 관광으로 연계해 인바운드 관광(외국인의 국내 여행)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수로왕릉 주변 화현동 일대와 김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시작을 지원하는 '아유타 라운지 조성' ▲'금바다 김해' 이미지를 부각하는 '봉황대길 골드스트리트 명소화' ▲인도에서 온 허황후 역사와 남부권 최대 아시아 마켓이라는 지역성을 결합한 '김해 카레축제' 개최 ▲관광도시 김해 매력을 알리는 '관광 브랜딩 사업' 등이다. /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中 징면시와 경제·교육 교류 강화

리우민 부서기 등 대표단 방문

포항시가 중국 우호교류도시인 징면시 대표단과 만나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26일 중국 후베이성 징면시 리우민 부서기 일행이 포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교육기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징면시 대표단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포항에 머물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도시는 기존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지역 주요 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26일 포항시를 방문한 중국 우호교류도시 징면시 리우민 당위원회 부서기와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시설을 둘러보며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 또 영일고등학교를 찾아 '징면제1중학교 학생 서화 작품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 노동력 줄이는 벼 재배기술 보급

무경운 이앙 현장 교육·시연 진행

경주시가 벼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형 저탄소 벼 재배기술 보급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는 최근 산내면 외철리 일원 논에서 벼 무경운 이앙 재배기술 현장 교육과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신경주농협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경운 이앙 작업 과정과 재배관리 요령,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 농업인들은 작업 편의성과 물관리 방법, 잡초 방제 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벼 무경운 이앙은 경운 작업 없이 논 표면 상태를 유지한 채 이앙기로 모를

심는 재배기술이다. 경운 횟수를 줄여 농기계 작업시간과 연료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토양 교란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재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경운 이앙은 레이저균평기를 활용한 정밀 균평 작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논 표면 높낮이가 고르지 않을 경우 이앙 깊이 불균일과 결주 발생, 물관리 불량, 잡초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무경운 이앙은 정밀 균평과 체계적인 물관리, 적기 잡초 방제가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동력 절감과 저탄소 벼 재배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도, 청년멘토로 로컬창업 키운다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 중심 추진

충남도가 지역 기반 청년 창업가를 '청년멘토'로 육성해 인구감소지역의 로컬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충남도는 2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충남 로컬창업 청년멘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청년멘토들은 앞으로 지역별 청년 로컬창업 네트워크 운영을 비롯해 창업 동향 파악 및 과제 발굴, 정기심화 컨설팅, 성과 공유 및 생태계 활성화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가 간 연계와 협업을 이끌며 로컬창업 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올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도내 인구감

소지역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를 선발했다. 지역별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 촘촘한 지역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네트워크 운영 방향 안내가 진행됐으며, 김민이 초록코끼리 대표가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남성연 충남도청청년정책관은 "청년멘토들이 지역 창업가들의 든든한 연결고리이자 성장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는 청년 로컬창업 교육과 브랜드 개발, 멘토 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나주시 임신·출산·양육 정보 모바일 제공

전남 나주시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까지 관련 지원 정책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도입했다. 종이책자의 접근 한계를 보완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나주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나주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나주시와 보건소 누리집 첫 화면의 '임신·출산·양육지원' 배너를 클릭하면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바르셀로나상의회와 투자유치 협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CCB)와 투자유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는 1886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 경제기관으로, 현재 약 33만 500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협약은 양 지역 기업들의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상대 지역 투자활동 지원 ▲투자 연계 마케팅 협력 등이다. 이번 MOU는 DGFEZ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한 투자유치 IR 활동의 성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